



[경제종합]  
현대차그룹  
반도체·노조 약재에  
실적 제동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695.05 (0.00)	코스닥	904.75 (0.00)
금리 (미국 3년)	2.958 (+0.033)	환율 (원/달러)	1255.90 (-16.60) (4.29)

# 韓 경제 이끄는 삼성,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선봉장 우뚝

역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① 삼성전자

SAMSUNG

시총 전체 코스피 20% 수준  
수출액 비중도 20% 넘어서

휴대폰·반도체 등 글로벌 선도  
바이오 등 미래산업 투자 활발

삼성엔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표 기업이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30%를 훌쩍 넘는다. 수출액에서도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설 정도로 국내 경제 기여도는 독보적이다. <관련기사 4·5면>

메트로신문이 국내에서 창간한지 20년, 삼성에도 지난 20년은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였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에 올랐고, 평면 디스플레이에서도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를 씻어내며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했다.

휴대폰 시장에서도 발 빠른 변화와 사활을 건 도전으로 시대를 바꾸고 시장 1위를 기어코 점령하며 대한민국 전성시대를 만들어냈다.

삼성의 이같은 성과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일본을 제친 것이 특히 의미가 깊다. 선제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아 D램 시장 1위로 우뚝 섰으며, 낸드에서도 도시바 등 경쟁한 일본 기업들을 따돌리고 메모리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소니 역시 높은 제품 경쟁력으로 넘어 서며 TV 시장 판도를 뒤바꿨다. 갤럭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오른쪽)의 모습.

열풍은 압도적인 휴대전화 시장 1위 노키아를 무너뜨렸다.

삼성은 이제 전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다.

반도체를 처음 만든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1위에 올라왔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갤럭시가 스마트폰 원조인 애플을 견제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브랜드 경쟁력 조사에서도 구글과 야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역사가 깊은 글로벌 브랜드와 순위를 다투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삼성의 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메모리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초격차'를 본격화하며 시장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전

장과 네트워크 등 IT 뿐 아니라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는 바이오 부문에서도 일찌감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선한 영향력도 키우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동행'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나감은 물론, 모든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폐기하는 작전을 실행 중이다. 청년 취업난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면서 대한민국의 동반 성장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총수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통해 전세계 전자 산업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했다"며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등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만큼, 앞으로도 경쟁력을 제고하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 안보실장 김성한, 경제수석 최상목 지명

尹 대통령실 '2실·5수석' 인선 발표

경호처장 김용현, 정무수석 이진복  
사회수석 안상훈, 홍보수석 최영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도 함께 자리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장 비서실장은 "김 교수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한 국내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자로 정부 부처의 직·간접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책적 전문성과 학자로서의 학문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며 "김 내정자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변동성이 큰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최적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호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차장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발탁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 김태호·2차장 신인호·경호처장 김용현·정무수석 이진복·대변인 강인선·사회수석 안상훈·경제수석 최상목·홍보수석 최영범·시민사회수석 강승규 내정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임명됐다.

장 비서실장은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방위하고, 대통령이 위치하는 특정경비구역의 경호 업무를 총괄한 바 있어 경호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를 옮기는 역사적인 시점에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제시해 안보 및 경호 공백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걱정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장 비서실장이 앞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시민사회수석에

는 강승규 전 의원이 발탁됐다.

장 비서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는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주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 국회나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에 내정된 이진복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이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철학과 중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여·야를 연결하는 소통과 협치를 이끄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건설현장 안전기준 강화에 현장 안전관리자 확보 비상

인력공급 대비 수요 감당 어려워  
중소·중견사는 공사중단 우려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전 인력 수요가 늘어나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건설사 사이에 선 인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앞다퉈 안전관리자 구인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건설현장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마련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해당 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건설사들도 미리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공사 규모가 120억원을 넘는 사업장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지만, 지난 2019년 개정 이후 ▲2020년 100억원 ▲2021년 80억~100억원 ▲2022년 60억~80억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소규모 사업도 예외 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만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인은 2017년 2만4196명에서 2021년 3만898명으로 6072명 늘었다. 연평균 1400여명 증가한 셈이다.

반면 다음해 7월까지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인원은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해 공급되는 안전관리자가 모두 투입된다고 해도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중소·중견건설사들이다. 대기업의 경우 웃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면 그만이지만 중소·중견건설사들은 자금력이 약한 탓에 쉽지 않다.

<3면에 계속>

/양희문 기자 yhm@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 대통령, 주말 동안 'MB·김경수·정경심' 사면 장고  
▲ 국힘 "文대통령, 법조인으로 양심 갖고 '검수완박' 숙고하라" /사진 뉴시스

▲ 윤호중 "국무회의 개최 관련, 당 의사청와대에 전달"  
▲ 국힘 "文대통령, 법조인으로 양심 갖고 '검수완박' 숙고하라"



▲ '尹특보' 박민식, 분당갑 보궐 출마... "대장동 부패세력 일소"  
▲ 민주, 지방선거 첫 출마 청년들 만나 "첫 마음 지켜야" /사진 뉴시스